

막스 베버 (Max Weber) 方法論 考

李 柱 晟*

- 머릿말
一. 歷史認識
二. 理解의 方法

- 三. 理解의 方法의 內容
四. 結 論

머 릿 말

여기서 論하려고 하는 막스 베버는 요셉 A. Schumpeter 가 그러 하듯이 經濟學者 이면서 社會學者인 20世紀初期의 社會科學의 方法論에서 그 思想을 보여준 사람이다. 따라서 하나의 論文을 記述 하려면 全體的인 思想面을 均衡있게 表明 해야 할것이나 本記述者의 깊지 못한 識見으로 해서 베버가 가지고 있던 社會科學의 方法論 그 中에서도 經濟學을 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出發 態度에 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 가를 말함으로써 本論文의 使命意識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우선 보어나온 理解를 위하여, 말하여 들것은 經濟社會를 分析코자 함에 있어서 대체로 칼 H. Marx 에 가깝다고 보겠으나 그는 外的인 特徵을 分析 함에 그치고 社會構造가 그自體 構造變動을 일으키고 있을時까지는 內的인 動因이나 方向의 分析에는 돌아보지 않았음에 批判의 餘地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헤겔이 佛蘭西 市民 革命에서 느낀바를 그의 著「歷史哲學」中에서 말하여 “人間은 이제야 비로소 精神의 現實을 支配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段階에 到達 하였다. 따라서 佛蘭西 革命은 찬란한 아침의 太陽과 같다. 思想을 가질수 있는 모든 人間은 이 새로운 紀元을 祝福 하였고 崇高한 感激이 이 時代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마치 神의 本質과 世界의 調和가 시작이나 한것처럼……”이라고 말하였 던感激에는 틀림없이 새로운 歷史에 대한 情熱을 쏟고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말일 佛蘭西市民革命이 現代 民主主義의 始發이라고 한다

* 本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商經大 助教授

던 헤겔의 이같은 情熱은 民主主義가 人民의 生活의 要諦이 있음이 분명히 됨으로써 獨逸의 政治社會學者 오토 Stammer 에 의하여 새로운 側面으로 發展하였는데 그는 自由의 問題가 現代의 社會가 갖는 意味로 다시 強調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함으로써 民主主義의 歷史的 段階를 指摘 하고 있다. 그는 平等의 原理 이외에도 自由의 要素가 現代 民主主義를 위해서 는 더 한층 本質的이 되었다고 힘주어 말하고 政治的 自由, 意思發表의 自由, 政治意志 및 團體組織의 自由는 民主主義가 自己를 저버리기 前에는 단념 할 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이와같은 自由의 定義는 이 보다도 더 큰 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即 憲法은 오직 政治的 意志形成, 社會的 自然發生性的 自由를 保障할 뿐만 아니라, 國家에 對立 할수 있는 個人의 諸權利가 保障 되지 않으면 안된다.¹⁾ 이는 確實히 어떤 思想이 가지는 歷史的 意識은 變動 함을 뜻한다고 보겠다. 그러면 Max Weber (*1864 1920)의 方法論으로 머리를 돌리는데 우선 歷史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一. 歷史認識

베버는 獨逸 19世紀에 있는 歷史學派의 社會科學 方法論을 反省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未完成의 論文 “Roscher und Knies und die logischen Probleme der historischen National-Ökonomie, G. Schmoller Jahrbücher 1903-6) 가운데서 理解的 方法論을 부르짖어, Immanuel Kant가 그의 著 判斷力 批判에서 展開 했던 文化目的論을 社會科學 方法으로서 發展 定型化 시켰던 것이다. 이 새로운 方法은 古典發派와 歷史發派와 의比較에서 形成 되었으며 특히 이두 學派의 方法論上的 對立을 超克 하였다.

歷史學派는 國民生活의 側面으로서의 經濟生活을 地域的, 歷史的으로 限定 되어 있는 어떤 具體的인 것으로 찾아낼려는데 눈을 모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問題를 解決 하기 위한 方法으로 經濟主體를 살아 있는 生活主體로 認識 하여 그 主體와 歷史的 地域的 環境 및 國民精神과의 接合으로부터 具體的인 經濟生活의 樣態를 誘引 하는 方法을 追求 하였다. 이 方法의 모색에 이르러서, 社會有機體說의 思想의 背景이 뒷받침 되어 經濟發展段階說이라고 하는 理論的 體系로 까지 發展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體系가 형성한 方法的 內容이 충분히 紮明 되었다고는 말하기 아직 이르다. 그리 하여 베버는 經濟學方法論의 問題를 歷史的 認識의 問題로 보고 歷史學派가 놓고간 問題를 풀어 부려고 하였다.

그러나 古典學派가 理論的 背景으로 하고 있었던 自然主義的인 社會觀이 반드시 經驗에 의하여 確立된바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歷史學派가 批判을 던졌던것은 妥當한 일이다. 물론

1) Otto Stammer: Politische Soziologie; in Soziologie ed. by A. Gehlen & H. Schelsky, 1962 p. 284.

그批判의 結果가 그 時代의 國民精神(Die Zeitgeist des Volkes)을 主體로 한 歷史的 發展이라는 憶說에 그쳤음은 이 自體 또한 經濟學者들에게 形而學的인 假說을 끌어 들인것에 不過하게 되어 올바른 認識態度라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서 이들의 古典學派의 自然主義와 歷史學派의 國民的 歷史主義를 除去하면 歷史的 社會現象으로서의 經濟認識의 問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는 客觀的인 狀況과 主體의 行動樣式의 交錯을 分析하여 그 意義를 分明히 하는 것이고, 이는 또한 狀況 理解(Deutung)의 問題로된다. 이러한 問題에 비추어 보건데 古典學派의 經濟學方法은 缺點을 가지게 된다.

古典學派는 狀況을 構成하고 있는 要因을 分析하여 거기 비쳐지는 因果關係(Kausalität)를 抽出하였다. 그러나 因果的인 分析에 쏠렸던 나머지 時代的 狀況이 지니는 意識을 充分히 理解하지 못했다. 여기서 歷史的 狀況이라고 함은 오직 因果法則에 의해서 把握코자 해서는 社會現象이란 分明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分析 道具를 要하게 되는데 經濟發展의 手段으로 國民精神을 導入하여 그 精神이 가지는 目的을 想定하므로써 거기서 合目的的인 關係를 捕捉코자 함을 研究對象으로 할때에 使用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合目的性을 理解 함에는 그 뒤에 숨은 因果關係를 充分히 捕捉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도 經驗的 妥當性에 疑心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여기서 베버는 因果分析과 目的論的인 理解가 論理的으로는 相互 對立하는 것 같으나 實은 어느것이나 現實現象에 接近코자 하는 「理念型的 概念構成」(Idealtypische Begriffsbildung)²⁾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이 兩者의 方法論을 超克하여 自己의 獨自의 思想體系를 세워 보았다고 하겠다.

客觀的인 因果分析은 베버에 있어서는 狀況理解를 위한 하나의 手段에 지나지 않으며 因果分析의 限界 뒤에, 아니 저건너편에 남아있는 未解決된 問題야말로 그 狀況이 지니고 있는 歷史的인 個體(Historische Individuum)로서의 內容中心을 갖는다. 이와같이 하여 얻어진 것이 主觀과 客觀의 結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現實自體는 되지 못하고 벌써 어떤 第3의 意義를 가지는바, 베버의 理念型(Idealtypus)은 이러한 意志의 概念的 構成이며 이때 이 理念型을 構成하여 나가는 方法이 바로 앞에 말한 理解的 方法인 것이다. 그러면 좀더 細論하여 理解的 方法을 알아 보려고 한다.

二. 理解的 方法

앞에서 우리는 베버의 理論形成의 方法이 영국의 古典經濟學派의 自然主義와 독일 歷史學派의 歷史主義에 어느것에도 批判을 던져 새로운 歷史認識의 問題를 提示 하고 있음을 보았

2) Max Weber; Wissenschaftslehre p. 131.

다. 여기서 우리는 이學者의 批判方法의 意味를 좀더 찾아 봄으로써 理解의 方法의 本質을 분명히 할 必要가 있다고 보겠다. 우선 그는 古典學派의 自然主義에 대하여 反對한바 있는데 이는 歷史現象의 根底에는 主體의인 要因이 強하게 作用 하고 있음이 事實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인데, 單純한 客觀的 要因 만으로서가 아니라 主體의 要因이 作用 함으로써 歷史的 現象은 意味를 갖는 現象으로 된다고 한다. 이때 이意味를 찾아내는것이 바로 歷史認識이다. 그러므로 自然主義에 대한 批判은 客觀主義에 대한 主體性의 立場을 부르짖었던 것으로 된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 歷史現象의 根底에 主體의 要因이 作用 하고 있다는것이 독일의 歷史學派 經濟學者의 한사람인 K. Knies도 注意 하였던 바와 같이, 主體가 그 行動에 있어 客觀的 要因을 支配 하고있는 어떤 法則을 하나의 條件으로 하여 行動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法則摘用に 의해서 歷史現象의 合理的인 것에 接近 하기는 하지만 그 現象이 發生했다고 하는 것은 主體意志에 關聯 되는 것이므로 Kant의 表現을 빌린다면 거기에 「叡知的 偶然性」이라고 불리워질 어떤것이 숨어 있는것 같다. 그리하여 法則摘用に 의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社會의 現象을 認識 할수는 있을지라도 그 現象自體의 存在理由는 알수 없는것이다. 即 認識理由와 存在理由는 別個의것으로 보았다. 그는 因果法則은 認識手段인데 이를 이용하여 現象의 意味에 接近 할수는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그意味가 충분히 理解 될수는 없다고 한다. 이와 關聯하여 歷史現象의 理解에 대해서 「歷史는 어떤 事實의 具體的인 姿態를 그個性的인 形態에 있어서 因果的으로 理解 하여야 한다고 하나, 그것은 그 個性的인 諸 現象의 性質의 全體를 하나도 빠짐없이 再現 시켜 이를 因果的으로 說明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實際上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理論的으로도 無意味 한것이 된다.」³⁾ 이것은 歷史理解는 現實 그自體의 表現을 企圖함이 아니고 問題의 方向을 분명히 하여 現實을 構成 하고 있는 要因을 識別 하여 概念構成을 이룩하여야 함을 意味 한다. 따라서 自然主義에 대한 批判은 表現主義에 대해서 構成主義를 取함을 含意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의 性格을 보면, 베버는 歷史主義와의 關聯에 있어서 歷史主義 自體를 批判 하는 것이 아니고 形而上學的인 歷史哲學과 浪漫的인 直覺主義에 관해서만 批判을 加하고 있다. 독일歷史學派가 經驗主義를 제창 하면서도 論理的인 면에서 體系를 잃지 않고 理論的인 면에서 歷史哲學의 構想을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들은 時代의 國民精神이라는 超個人的인 主體를 想定하여 世界文化史의인 發展段階를 展開 하였으나 베버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國民精神을 前提로 한 理論은 結局 하나의 形而上學에 지나지 않았었다. 歷史現象에 이러한 精神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歷史意識에 있어서는 이러한 精神의 概念的인 構成 또한 分析 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 때문이다. 經驗에서 얻어진 要因을 基礎로 하여 그概念構成을 分明히 하지 아니하는 限, 이精神을 前提로 하여 理論을 體系化 한다는 것은 避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3) dito.; Objektive Verursachung und adäquate Möglichkeit, Wissenschaftslehre, p. 272.

베버는 歷史主義 批判에 있어서, 形而上學에 대하여 實證主義를 부르짖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方法論的 特徵을 짚어지고 한걸음 發展 하여 時代적인 어떤 現象을 떠 맡고 있는 主體意志를 直覺的으로 理解 한다는 것은 아마 歷史理解에 있어서 없앨 수 어려운 作業으로 본다. 그러나 歷史認識은 이 直覺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더불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直覺을 概念說明의 領域에 가져 오는 것이 理解의 方法의 中心 問題. 그런 뜻으로 부터 B. Croce의 直觀은 直覺主義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서 理解의 方法으로 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베버는 感性移入이나 直觀을 法則學的 知識과 結合시켜 概念的으로 說明할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 없이는 歷史科學은 歷史小說로부터 識別기 어렵다. 이와 같이 베버는 直覺主義에 대하여 개념주의를 제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方法論上의 性格을 要約 하여 보면 主體主義, 構成主義, 實證主義 그리고 概念主義 라는 것으로 되어 實證的인 立體主義와 概念的인 構成主義로 베버의 理解的 社會科學接近方法을 理解 함이 妥當 하리라고 본다.

三. 理解的 方法의 內容

보다 合理的인 理解를 위해서는 歷史現象을 떠 맡은 主體의 行動이 合理的인 目的과 手段의 結合과 適合을 가릴 必要가 있다. 베버는 主體가 人格을 (Persönlichkeit,) 가지며 選擇의 自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行動의 非合理性을 끌어 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해서 勞動者의 決意가 自由로우면 自由로 울쭈룩 外的인 구속 또는 反抗感情에 소동을 이르지 않는바 長時間의 熟慮에 젖어 있으면 있을쭈룩 他 條件이 同一한 限 그만큼 그動機는 충분히 目的과 手段의 範壽에 應하게 되며 合現的 分析을 行할수 있으며 合理的 行動의 圖式의 摘用이 容易하게 되어 그 만큼 勞動者 自身에 있어서나 分析家에 있어서나 法則學的 知識의 役割이 增大 하며, 그리하여 그 動機는 手段에 관한 限 決定論的으로 되어버린다」⁴⁾. 따라서 史家의 理解에 있어서는 人格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理解 할수 있다」고 하였다.⁵⁾ 이렇게 생각한 베버는 主體主義와 合理主義를 結合시켜 그의 理解의 方法論의 礎石을 세웠던 것이다. 主體의 自由와 選擇은 그에게 있어서는 可能한 目的·手段系列 가운데서 어떤것을 擇할것인가 하는 問題인데 대체로, 이 目的·手段系列이라고 하는 것은 複雜 한것이다. 그러나 일단 行動이 行하여 지면 그것은 어떤 一定한 法則的 制約에 따르게 되므로 이 法則學的 知識을 가지고 主體行動을 理解 할수가 있다. 물론 主體가 그 內面에 있어서 어떤 目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것은 분명히 알려지지 않는으나 理解 라고 하는것은 이

4) dito; Roscher und Knies, Wissenschaftslehre, p. 134.

5) dito; dito p. 133.

心理的인 目的을 그대로 再現 하는것이 아니고 그 行動이 手段으로 使用한 條件과 結果와의 合理的인 關係로부터 그 行動의 意味를 把握 한다. 그리 하여 베버는 「우리들 人間行動을 분명히 意識된 그리고 意慾的인 目的을 가진 分명한 手段의 認識에 의해 制約되어 있는 것으로 理解한다면 이 理解는 疑心할 바 없이 높은 次元의 明證을 갖게 된다」⁶⁾고 記述 한바 이것이 베버의 理解의 方法의 形式的인 性質인것이다. 지금부터 베버의 理解의 方法으로 歷史的 狀況을 理解하는 過程을 考察코자 한다. 우선 (1) 우리가 歷史認識에 使用하는 資料는 하나의 歷史的 狀況에 관해서 만도 매우 複雜 하기 때문에 그狀況을 있는 그대로 再現한다는 것은 不可能 하며 또한 無意味하다. 따라서 어떤것에 관하여 그 狀況을 理解 할것인가를 먼저 決定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問題의 決定과 認識目的의 確立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2) 이 狀況 가운데로 부터 이 問題에 關聯이 있는 要因을 選擇하여 이를 다른 것과 分離 시킴으로써 抽象化 시킨다. 그렇게 하므로써 하나의 思考形象의 抽出이 可能 하다. 이에 관하여 베버는 「이러한 過程에 의해서 부여된 現實은 그것이 歷史的 事實로 되기 위해서는 思考形象으로 轉化 하게 된다」⁷⁾고 덧붙혔다. 다음 (3) 그는 以上の 構成內容은 어떤 要因의 除去와 남은 要因의 單純化 作業을 行한다. 이 純化 된 要因이 어떤 結果를 가져 오는가를 明白히 함이 「可能性 判斷」(Möglichkeiturteil)이라고 불리워 진다. 베버의 말을 빌려 보면 「이런 意味에서의 可能性判斷은 항상 經驗法則에 關聯 하고 있다」⁸⁾ 앞에서도 말한 法則學的 知識(Nomologisches Wissen)에 지나지 않는 經驗法則의 摘用에 의해서 可能性 判斷이 成立 하게 된다. 그런데 이 判斷이 歷史的 事實을 충분히 解明 해 주는가 혹은 못하는가 함이 다음의 問題에 이 判斷 그 自體는 산 現實 그 自體는 아니며 思考現象에 대하여 法則學的 知識을 摘用해서 부여 된것이기 때문에 이는 判斷과 그뒤에 오는 事實이 반드시 一致 할수는 없으며 그 事實이 必然的으로 發生 한다고 斷定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經驗 法則에 의해서 問題視 하고 있는 結果가 충분히 發生하리라고 보여진다면 法則學的 知識의 摘用에 의해 「充分한 起因關係」(adäquate Verursachung)가 분명해진다. 이들 要因에 偶然的 要因이 加해 지지 않코서는 그러한 結果가 생기지 아니한다면 偶然的인 起因關係 밖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充分한 起因關係」는 「法則學的 知識」과 「存在論的 知識」(ontologisches Wissen) 間에 接合關係가 成立 하는 경우다. 이것에 의해서 經驗法則에 비추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現實的으로 發生 할 경우를 알수가 있다. 반면, 偶然的인 起因關係라고 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나타난 事實이긴 하지만 經驗的 法則에 의해서 이러나리라고 했던것은 아니다. 이 경우엔 「存在論的 知識」과 「法則學的知識」이 結合되지 않코 있다. 이와같이 歷史

6) dito; dito p. 127

7) dito; Objektive Möglichkeit, Wissenschaftslehre, p. 275.

8) dito; dito. p. 276.

認識에 있어서는 偶然的인 起因關係와 「充分한 起因關係」가 對比 된다. 끝으로 「充分한 起因關係」가 얻어지면 어떤 一定한 歷史的 狀況에 관해서 理念型的 概念 構成이 이루어지며 歷史 認識이 成立하게 된다. 그런데 이 認識의 成立에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하는 經驗法則 또는 法則學的 知識도 또한 하나의 理念型에 礎石을 두고 베버의 理解의 方法論이 나왔다. 여러 가지의 念型은 앞에서 기술한 方法的 內容을 가지고 構成된다. 다시 말하면 認識目的의 確定 現實을 構成하고 있는 一定한 要因의 捨象과 其他要因의 單純化, 經驗에 의한 抽論, 및 存在論的 知識과의 對應關係의 檢討가 그것이다.

歷史認識의 方法으로 뛰어난 베버의 理解의 方法이 독일의 歷史學派가 目標했던 經濟學의 理論體系에 얼마나 貢獻하였던가 하는 點을 생각해 보자. 따라서 여기서는 새로운 理論 經濟學의 體系를 樹立코자 하였던 C. Menger의 理論內容을 베버가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가를 봄으로써 보다 理解를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即 멩거는 經濟性的 原理를 중심으로 하여 經濟行爲의 合理的 關聯性을 찾아 이를 基礎로 經濟社會의 秩序(Ordnung)가 構成되는 過程을 解明 하고 있는데, 이는 理解의 方法과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베버도 自己의 理念型的 概念構成에 있어서 멩거의 限界效用의 法則을 事例로 내세우고 있다. 멩거는 우선 (1) 理解(Verständnis)와 單純한 認識(Erkenntnis) 과를 區別 하고 둘째 (2) 理解를 더욱 歷史的 理解와 理論的 理解로 나누고 끝으로 (3) 理論的 理解를 더 細分하여 經驗的·實存的인 것과 (empirisch realistische) 精密的인 것(exakt)으로 나누고 單純한 認識은 現象을 그대로 表現 하는 것이지만 理解는 實在(Sein)와 樣態(Sosein)를 알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理解中에서 歷史的인 理解는 現象의 個體的인 造成過程은 규명하고 理論的 理解는 現象의 繼起와 併存을 規定하는 法則을 把握코자 한다. 이 法則을 把握하는 데는 實在에 관해서는 그 類型을, 또한 樣態에 관해서는 그 類型的인 關係를 취할 必要가 있다. 經驗的 實在論的 理解는 類型으로서의 實在型(Realtypus) 을, 또한 그 關係(Beziehung)에 있어서는 經驗法則을 취함에 대하여 精密的 理解는 諸 理念型과 精密法則을 把握하고자 한다.

특히 멩거에 있어서는 社會現象에 대한 精密的 理解는 可能하다고 보았다. 社會는 어떤 共同意志에 의해서가 아니고 個人들의 合理的 意志에 의해서 無反省의으로 생기게된 合成物인 경우가 왕왕 存在한다. 따라서 이같은 社會現象을 理解함에 있어서는 元素의 作用을 알아야 한다고 하여 個人의 行動動機를 찾아 法則을 樹立 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社會現象을 理解함에는 精密原子論的 方法(exakt-atomistische Method)을 分析 道具로서 갖고 나왔다. 이것이 바로 人間의 經濟性的 原理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經濟財에 대한 合理的인 評價는 價値를 갖고 있는 것에 限했다. 여기서 價値라고 하면 經濟支配對象과 經濟支配主體의 力學的 關聯에서 이루어지는 關係이며 對象의 効用과는 區別 되어야 할 것이다.

멩거 理論의 中心 思想은 社會의 經濟現象을 보는데 있어서 社會가 Macrocosmos임에 대하여 經濟主體는 Microcosmos이며 後者는 前者의 秩序를 表現 할수 있다고 하여 全體와 개체間的 調和를 前提로 한다. 卽 社會現象이 個人의 行動으로 부터 有機的 自然的으로 造成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멩거의 方法이 主體主義와 合理主義를 그 立脚點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베버와 同一한 系列에 놓였으나 理念型的 概念構成의 經驗的 妥當性에 관해서는 약간의 相反된 方向을 보였는데, 멩거는 精密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의 經驗的 妥當性이 어떤 一定한 歷史的 狀況에서만 부여된다고 하지않았는데 反하여 베버는 理念型的 概念構成의 經驗的 妥當性에 관해서는 歷史的 制約이 存在함을 指摘하고 있는데 이는 베버의 著書「經濟와 社會」(Wirtschaft und Gesellschaft)에서 企業은 家計와는 달라 慾望充足을 目的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資本增殖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家計의 慾望은 市場에서 이루어지는 需要變動을 통해서만 考慮된다. 그런데 이市場에 있어서는 「人間의 人間에 對한 鬪爭」이 行하여지기 때문에 企業은 資本計算을 行하지 않을수 없다⁹⁾고 한것을 보면 멩거와는 다른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베버는 멩거의 理論方法을 말하여, 歷史的인 經濟生活을 理解하기 위한 하나의 「法則學的 知識」을 提供 할뿐이라고 하여 이러한 知識이 「存在論的 知識」과 結合되지 않고서는 經濟社會를 잘 알수는 없다고 批判 하였다. 이 두가지 知識의 對應關係는 언제나 時代性을 따라 變動하는 것으로서 멩거 理論은 항상 충분한 理解를 保證할 수 없다고 하였다.

四. 結 論

人間의 社會的 行爲의 類型을 베버는 目的合理的, 價値合理的, 感情的 그리고 傳統的 行爲의 四個의 型으로 區別 하였다.¹⁰⁾

물론, 여기서 區別한 四個의 類型이 別個로만 存在 하는것이 아니고 實際에 있어서는 結合되어 存在 하는수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 社會的 關係에 規則性이 存在하는 것은 그 社會的 行爲가 관습, 功利 및 正當한 秩序(legitime Ordnung)에 起因하고 있기 때문이다. 卽 功利性에 起因하는 行爲는 目的合理的인 行爲이고 正當한 秩序에 따른 行爲는 價値合理的 行爲이기 때문이다. 經濟的 行爲는 目的合理的인 行爲로 功利를 그 行爲의 動機로 하고 있다. 베버는 「行爲는 그의 主觀的 意味로 볼때 功利에의 慾望充足 獲得에 관한 限, 經濟的이다.」¹¹⁾고

9) dito; Wirtschaft und Gesellschaft, 1964, p. 49

10) dito; dito p. 12, 13.

11) dito; dito. p. 31.

말한바 있다. 그리하여 經濟行爲는 그 自體가 正當한 秩序를 內面的 理由로 만드는것이 아니고 오직 이를 外面的으로 功利的 目的 追求를 위해서 하나의 條件 내지 手段으로 利用할 따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秩序의 正當性은 價値合理性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秩序라는것은 그 絶對的 價値를 信賴하는 어떤 權威(Herrschaft)가 생겨났을때 이 權威에 立脚 하므로서 正當化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A. Smith가 그의 社會哲學에서 보여준 두 原理, 即 功利的 原理와 權威의 原理가 베버에게 크게 反映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目的合理化는 價値合理化를 前提 하므로써 비로서 可能 하다. 따라서 支配의 形態가 여러가지 樣相으로 展開 됨에 따라 經濟 現象도 달라지지 않아 할수 없다. 即 傳統的 支配下에서는 需要充足主義의 經濟意識이 支配 하게 되어 經濟는 傳統的으로 繼承된 共同社會의 存續을 위한 手段으로 役割 하는것이며, 近代化후의 合理的 支配에 놓여지면 營利主義의 經濟意識이 支配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資本主義社會의 秩序를 가져온다. 여기서 各者는 職業倫理에 立脚 하여 行爲 하는데 이를 베버는 資本主義精神」(Der Geist des Kapitalismus)이라고 하여 이에 의해 움직여지는 資本主義를 合理的, 近代的 資本主義 社會로 보아 그의 經濟 내지 社會科學의 方法論을 確立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後에 R.H. Tawney 에 있어서도 알려진 命題이지만 資本主義를 勝利로 이끌수 있게 한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Die protestantische Ethik)의 發生이었다고 하는것이 베버의 經濟學의 大命題로 된다.¹²⁾

12) G. Soule; Ideas of the Great Economists; 1962 p. 134.

